

## 청소년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 ③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3.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대책

청소년 약물 남용의 대책은 청소년이 본격적으로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청소년 약물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인 성숙도, 주위환경 여건, 약물의 구입 가능성 등 세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즉, 청소년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되어 있으면 약물에 빠질 위험성은 줄게 되며 가정·학교·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역시 약물 사용 위험성은 많이 줄어든다. 물론 약이 없으면 또는 약을 구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약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의 약물 문제는 가정·학교·사회·정부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이다.

가. 약물 남용에 관한 홍보 및 계몽 활동  
자녀의 약물남용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부모용 책자 발간·보급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나. 가정에서의 약물남용 예방 지도

1) 올바른 가치관 교육 :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의식·극기심·자기 존중 사상 등의 배양을 위한 인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약물남용·불량 이성교제·야간 외출을 규제하는 가정의 행동강령 마련

2)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찰 : 자녀의 생활 지도, 소지품 검사, 교우관계 및 청소년의 관심사, 걱정거리 등에 대한 대화, 자녀 친구 부모와의 정기적 모임을 통한 정보교환

3) 대화기회 확대 :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솔직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

그들의 고민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부모의 술선 수범 : 자녀에 대한 올바른고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지향, 부모도 약물을 삼가는 태도를 보이며 술·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5) 자녀의 약물 교육 : 부모가 먼저 약물 남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자녀에게 주지시키고, 이미 자녀가 약물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교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치료

#### 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학교 교과과정(생물 또는 보건위생) 안에 약물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철저히 지도하여야 하며 의사, 약사, 종교인 등 지역사회 지도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하게 한다.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와 일반사회가 함께 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 1) 학교 프로그램

- 예방교육 :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
- 교사 재교육 : 교도교사 및 일반교사에 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실시
- 학부모집단 교육 :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학부모회 조직
-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 현재 전국 교육 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약물교육 실시
- 또래집단 교육 : 또래집단 선도체제 형성 및 또래 상담자 활동
- 교과과정 개발 :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 약물교육 내용 포함

#### 2) 사회 프로그램

- 대상별 예방교육 : 근로청소년은 근로 복지회관에서, 시설 청소년은 각종 소년원 및 보호시설에서, 기타 청소년은 상담소,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약물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의 약물문제는 가정·학교·사회·정부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각 방송사에서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광고를 한다.
- 홍보교육 자료개발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 배포한다.
- 비상전화 설치 : 신고는 물론 상담을 위주로 한 비상전화를 지역별로 사회단체에서 설치, 운영한다.

### 라. 대안 프로그램 제공

약물사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정보, 교육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물보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 학교 프로그램 : 학교내에 각종 취미클럽, 각종 스포츠, 종교집단 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 직장 프로그램 : 산업체 및 근로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근로청소년들의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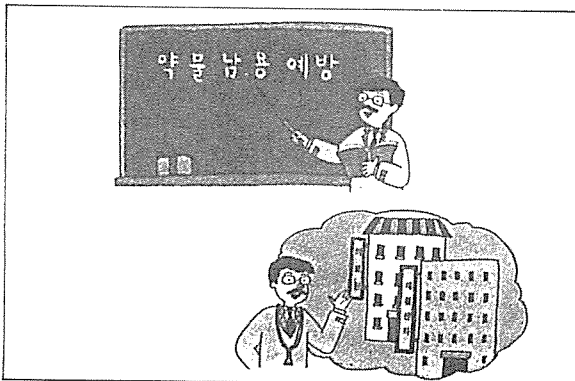
유도한다.

- 사회단체 프로그램 : 미진학, 무직청소년들을 위하여 사회단체에서는 학교와의 협조하에 특별교육, 문화사업을 개발하여 무직 청소년을 참여케 한다.

### 마. 치료 프로그램 제공

약물을 사용한 청소년 중에서 약물사용이 습관화되어 중독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이들을 치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단기치료기관 : 약물남용으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1차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해독시키는 응급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에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 임상심리학자, 교사, 사회체육지도자, 치료 보조원이 있어야 한다.
- 입원 및 외래 치료기관 : 정신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학교 교과과정 안에 약물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철저히 지도해야 하며,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와 일반사회가 함께 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약물사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정보·교육 이외에 약물보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약물사용이  
습관화되어 중독상태에 빠진 청소년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위탁·보호기관 : 하루 4시간 이상씩 동원하여 치료, 교육, 오락 및 집단활동의 광범위한 통합치료기관이 필요하다.
- 거주 치료기관 :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하는 환경 밖에서 치료받게 하는 격리, 수용, 통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 재활기관 : 집에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청소년이 낮동안은 병원, 학교, 직장에서 생활하게 하고, 저녁에는 이곳에서 식사하고 잠을 자게하는 재활을 위한 중간단계 시설이 필요하다.

#### 바. 유통과정 통제

청소년이 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지

역 즉, 학교주변 유흥업소, 오락실, 만화가게, 산책로, 공원, 영화관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업소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한다. 남용위험이 있는 물질의 원료 및 제품생산 제조과정의 엄격한 행정통제와 유통시의 관리강화 및 내용물에 대한 표시의 의무화를 실시한다.

#### 사. 약물 수요자에 대한 통제 강화

약물별 사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감별기준과 소변채취의 강제조항 등의 법규를 마련한다. 약물남용 청소년의 친권자에 대한 책임 처벌여부와 치료에 동반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나간다. ㉞

**마약없는 밝은 사회**

**다가오는 복지사회**